

# 막내린 '불지사리법회' 우려와 빛만 남아 빈그릇운동 동참자 120만명

11월 11일부터 40여 일 간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열린 '중국 법문사 불지사리 친견법회'가 일정을 모두 마치고 지난 12월 20일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번 법회는 개최전부터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재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초 100만여 명이 친견할 것이라는 잠정집계 속에 진행된 친견법회는 서울과 부산을 합해 모두 6만여 명이 친견했다. 이에 따라 관람객의 입장료 수입이 저조해 행사 경비 등이 부채로 남는 등 행사를 준비한 불지사리이념법회법회위원회(이하 불회위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있다.

이 행사를 공식 후원했던 한국불

## 관람객 총6만 불과...봉행위·투자자 30억 손해 중국불교계와 10년간 쌓은 신뢰 금갈까 걱정

교총연합회(이하 종단협)도 중국 불교계와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 행사가 성사된 것은 한국불교계의 적극적 후원 약속과 이에 대한 중국불교협회의 전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때문에 행사의 실패가 십 년 이상 쌓아온 양국 불교계 간의 신뢰에 금이 가지 않을까 우려가 일고 있는 것.

이번 친견법회를 주관한 봉행위와 투자자들도 30억 가량의 재정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불지사리를 한국으로 이윤해 친견

법회를 봉행한 데 사용된 비용은 고스란히 봉행위의 부담으로 남게 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행사 중반 이번 행사의 대표 투자자인 이모 씨가 부산법회를 앞두고 투자금을 갖고 잠적하는 등 악재가 겹쳐 왔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국불교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가졌던 중국불교협회의 스님도 행사가 제대로 치러지지 못할까 따라 상당히 곤란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까지 중국불교협회가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고 있다.

사실 이번 법회가 열리기 전부터 한국불교계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일정부분 상업적 의도가 있었던 데다 행사가 급하게 꾸러졌고, 홍보나 행사진행도 매끄럽지 못했다. 40여 일 동안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열린 법회에 겨우 6만 명의 불자가 참가했다는 사실은 우려를 현실로 드러나게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불교계 한 인사는 "재가신자들을 중심으로 강한 수행 열정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법회가 마련됐다는 것은 태생적인 실패 위험을 안고 있었다"며 "이런 대규모 행사를 열기에 앞서 불교계 전체의 투명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했다"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불교계가 시작한 대표적 국민운동인 '빈그릇운동'의 동참자가 100만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14일 현재 운동 동참을 서약한 사람은 모두 120만 832명. 운동 시작 1년여 만에 이룩한 성과다.

정토회 예로부터(대표 유정길)는 12월 20일 총무아뜰스에서 '빈그릇운동 100만인사약캠페인 결과보고회'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빈그릇운동을 통해 모금된 기금 7542만원의 일부를 인도 JTS(1500만원), 한국JTS(1500만원), 법파나눔운동본부(800만원)에 각각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이재용 환경부 장관은 "우리는 오래전부터 쌀 한 톨도 나눠먹던 미덕이 있는 나라였다"며 "환경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건강을 살리는 빈그릇운동의 놀라운 성과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



시: 2005년 12월 20일, 관: 정토회, 장소: 총무아뜰, 후원: 환경부

12월 20일 열린 빈그릇운동 결과보고회에서 법문 스님이 이재용 환경부 장관에게 동참자 서약명부를 전하고 있다.

다"고 말했다.

법파나눔운동본부 최일도 목사는 "종교와 정파를 떠나 빈그릇운동과 법파나눔운동은 동일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토회와 함께 나눔운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장관은 "빈그릇운동은 적게 먹어 건강하며 자연을 닮아가는 운동"이라며 군대, 기업, 학교 등 운동을 진행해온 곳뿐만 아니라 이웃종교와 정부기관과도 연계해 운동을 더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12월 20일 서울 종암동 건설부지에서 열린 성북장애인복지관 기공식 모습.

## 성북장애인종합복지관 착공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종법)은 지난 12월 20일 서울 월곡동 건설부지에서 성북장애인종합복지관 기공식을 열었다. 이날 착공식을 가진 성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상 5층 지하 1층에 대지 560평, 건평 744평 규모로 건립된다. 공사비가 100억원이 넘는 대형 복지관으로 2007년 5월 완공될

예정이다. 관에는 삼전종합사회복지관장 선재 스님이 내정됐다. 기공식에서 승가원 이사장 종법 스님은 "성북구내 장애인 시설 운영을 통해 쌓은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승가원이 성북지역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 파라미터 지도자 연수교육

### 5년이하 초·중등교원 대상

(사)파라미터청소년협회(회장 원택)는 1월 9~12일 서울 봉은사에서 청소년 지도경력 5년 이하의 초·중

등 교원을 대상으로 '파라미터 지도자 연수교육'을 진행한다. 연수는 △청소년 상담론 △청소년 복지 △친교활동프로그램 △파라미터 회원관리법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30명이다. (02)723-6165 이은비 기자

## 세상 떠난 딸 보험금 "장애인 위해 써달라"

부산의 한 60대 부부가 세상을 떠난 딸의 이름으로 지난 12월 19일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 자비복지재단 건립기금 1억 원을 전달해 세밀, 따뜻한을 전했다. 특별한 불자로 지난 10년간 한 달에 10만원씩 승가원을 후원해 온 노부부는

이번에 1억이라는 큰 액수의 성금을 전달하면

서 더 큰 안타까움과 감동이 전해졌다. 노부부는 "딸이 생전에 소꿉새마을에 가서 장애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이 생각나 보험금을 자비복지재단 건립기금으로 기부했다"면서 "추운 겨울, 소

이름의 60대 부부 1억원 기부 "장애인 돌보던 딸 생각나 결심"

김강진 기자

## 나눔의 집 위안부역사관

### 기획전시실 문 열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금자리 나눔의 집(원장 원행)은 지난 12월 18일 위안부 역사관에서 기획전시실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문을 연 역사관 기획전시실은 나눔의 집이 2005년 문화관광부 복원기금 사업비를 지원받아 기존

## 속리산 관광단지 활성화 추진

### 법주사·보은군 연꽃단지 조성 등 7개사업 결정

법주사를 중심으로 한 속리산 관광단지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은 법주사(주지 도공)가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행사위원장인 이용희 의원과 보은군수를 비롯한 기관장과 지역민을 초청, 12월 21일 경내 공현당에서 연 '보은 속리산 관광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법주사와 보은군은 대안위 연꽃단지 조성 등 7개 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벌여나가기로 결정했다.

7개 개발사업은 연꽃단지 조성 외

에 대형주차장 건립과 도로개설 및 확장, 수원지·온천 개발, 비룡저수지 종합개발 및 모노레일 설치 등이다. 이 자리에서 법주사 주지 도공 스님은 "지역과 법주사가 함께 하는 시설투자에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법주사와 보은군은 속리산 관광단지 관광객이 해마다 줄어들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자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해철 대전·충북 지사장

## 통영 용화사, 케이블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논란을 거듭해오던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건설 여부가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판기를 날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카 건설 부지 중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용화사가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통영 용화사(주지 선곡)는 지난 12월 21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를 중지할 것을 청원하는 가처분 신청을 청원지법 통영지청에 냈다. 용화사 주지 선곡 스님은 "변호사를 선임해 관련 법률을 검토한 끝에

## '우리말 법화삼부경'

### 점자도서 간행

조계종 총무원 문화국장 혜조 스님이 지난해 발간한 <우리말 법화삼부경>을 점자도서로 펴내고 지난 12월 27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정법회를 봉행했다. 혜조 스님은 해광행인불자회, 조계사 원심회, 반야화당과 함께 '우리말 법화삼부경'을 6권으로 구성된 점자경전 500질로 제작, 전국 21곳의 점자도서관과 행인불자나 필요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법화경> 사경과 번역에 매달렸던 모친의 뜻을 이어 번역에 나선 스님은 산사테루 집이 무너져 생사의 문턱을 넘나드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7년 만인 지난해 번역본을 출간했다.

이후 스님은 점자도서로 간행된 불경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게워 이 책을 점자도서로도 펴낼 계획을 세웠다. 4000여만원에 달하는 출판비를 모으기 위해 지난 1년간 문화부에서 받는 월급을 꼬박꼬박 모았고, 몇몇 스님들이 보내주는 후원금을 보태 점자도서로 출간할 수 있었다.

혜조 스님은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 20여만 명에 달하지만, 현재 출간된 점자경전은 특정 위주의 몇몇 권이 전부"라고 간행 취지를 설명했다.

여수령 기자

# 丙戌年 새해 새날

## 자비광명 온누리

원장 대행 주지 혜 원

본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TEL : 031-470-3100 / FAX : 031-470-3116  
http://www.hanmaum.org

◆ 국내지원 ◆

- 광명선원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곡 4구 산 5-2 TEL : (043)877-5000 / FAX : (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영평동 1500 TEL : (064)727-3100 / FAX : (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상동 522-1 TEL : (051)403-7077 / FAX : (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치원동 201-5 TEL : (062)373-8801 / FAX : (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TEL : (052)295-2335 / FAX : (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TEL : (053)767-3100 / FAX : (053)765-1600
- 중부경남 경남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21-1 TEL : (055)345-9900 / FAX : (055)346-2179
- 전주지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 : (055)744-1321 / FAX : (055)746-7825
- 공주지원 충남 공주시 사곡면 신영3리 152-3 TEL : (041)852-9100, 9102 / FAX : (041)852-9105
-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1 TEL : (054)232-3163 / FAX : (054)241-3503
- 천주지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95-7 TEL : (043)259-5599 / FAX : (043)255-5599
- 강원지원 강원도 강릉시 포남 2동 1304 TEL : (033)851-3003 / FAX : (033)852-0281
-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도현동 113-3 TEL : (055)643-0643 / FAX : (055)643-0642
-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삼동 952-19 TEL : (061)284-1771 / FAX : (061)284-1770
- 문경지원 경북 문경시 옥곡동 592 TEL : (054)555-8871 / FAX : (054)556-1989

◆ 해외지원 Overseas Branch ◆

- New York (미국 뉴욕플러싱 지점) 144-39,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 : (1-718)460-2019 / FAX : (1-718)939-3974
- Washington D.C. (미국 워싱턴 지점)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 : (1-703)560-5166 / FAX : (1-703)560-5566
- Los Angeles (미국 LA 지점)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 : (1-323)766-1316 / FAX : (1-323)766-1916
- Chicago (미국 시카고 지점)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 : (1-847)674-0811 / FAX : (1-847)674-2280
- CANADA (캐나다 지점) 20 Mc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 : (1-416)750-7943 / FAX : (1-416)701-1359
- Buenos Aires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점) Miro 1575, cp14061, Cap. Fed. Rep. Argentina TEL : (54-11)4921-9286 / FAX : (54-11)4921-9286
- Tucuman (아르헨티나 투쿠만 지점)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cp4107 Tucuman, Rep. Argentina TEL : (54-381)425-1400
- GERMANY (독일 지점)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 : (49-0)2131)969551 / FAX : (49-0)2131)969552
- THAILAND (태국 지점) 86-1 soi 4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TEL : (86-2)391-3091
- Sao Paulo (브라질 상파울로 지점)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 01127-000-Brasil TEL : (55-11)3337-5291